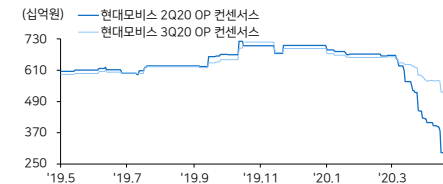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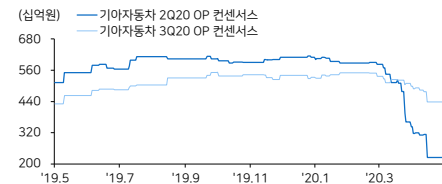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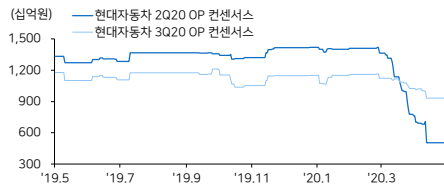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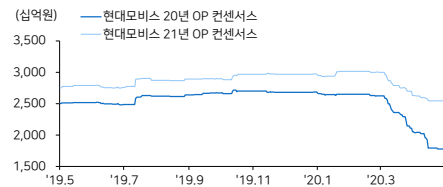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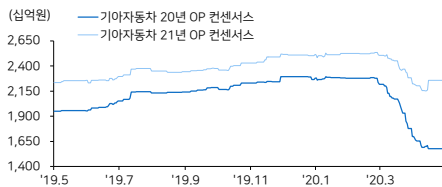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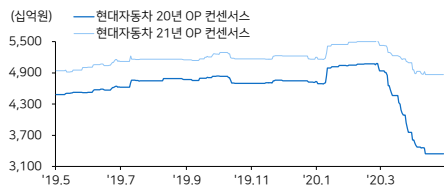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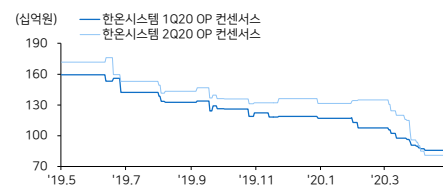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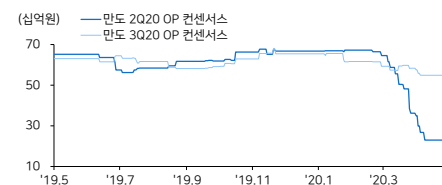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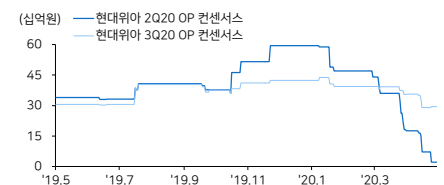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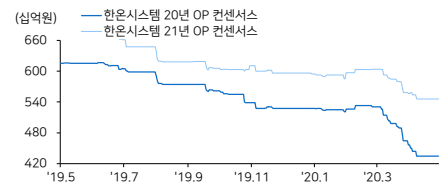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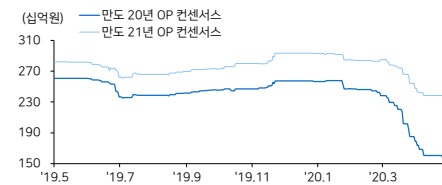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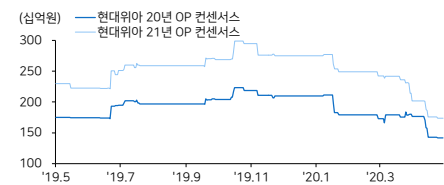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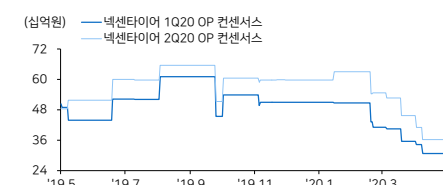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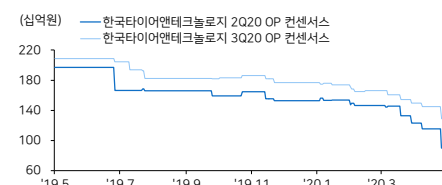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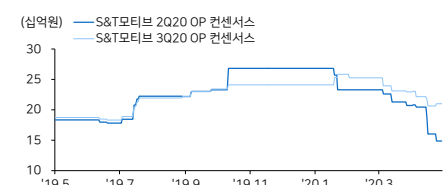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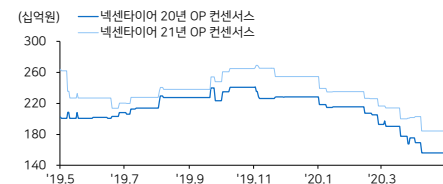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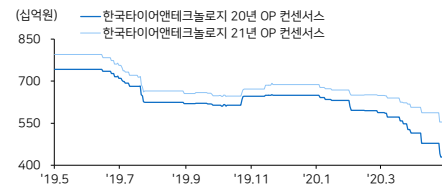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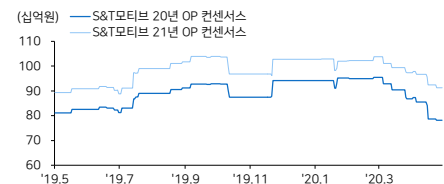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 · 기아차, 18일 해의 모든 공장 돌린다 (서울경제)

오는 18일 현대 · 기아차 전체 해외공장이 가동.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여전히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회사 측도 현지 상황에 맞춰 축소 운영할 계획이어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ByAieO>

현대차 스펙트럼 엠바이움, '그랩'과 손잡았다 (아시아경제)

현대차에서 분사한 바이오기술 스타트업 엠바이움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그랩'과 손잡는데 성공. 엠바이움은 그랩 차량에 자사 제품이 탑재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 진출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함.
<https://bit.ly/3fRyazS>

"한국산 타이어 최고 195% 덤핑"…美 최대노조, 상무부에 청문 (더구루)

미국이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 위해 조사를 예고. 국내산 타이어가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현지에서 타이어를 팔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금소 등 타격이 우려됨.
<https://bit.ly/3fZruCe>

포스트 코로나가 무서운 자동차 산업 (이코노믹리뷰)

뉴욕타임스(NYT)가 자동차 산업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며 이 업계의 미래를 진단. 판매 감소로 공장 폐쇄 · 인수 합병, 전기차 출현까지 겹치며 기존 업체 생존 압박을 전망함.
<https://bit.ly/2AolGk4>

현대차, 수소상용차 · 택시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 시동 (비즈니스)

현대차가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서울시 택시사업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다자간 협력을 기 반으로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https://bit.ly/2WRCBck>

전기차, 긴 충전시간에 비싼 가격…현대차, 망설이는 고객 잡기에 총력 (뉴스원)

친환경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올 1분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증가. 다만, BEV의 활약상은 다소 아쉬움. 가격과 긴 충전시간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
<https://bit.ly/2YxYxud>

무디스 세계 자동차 판매량 20% 급감 전망…한국 -6%로 양호 (MBC뉴스)

무디스는 오늘 발표한 세계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판매 감소 전망치를 중전의 14%에서 20%로 대폭 조정한다"고 밝힘. 지역별로 보면 판매 감소율은 서유럽 30%, 미국 25%, 일본 15%.
<https://bit.ly/360Fqql>

코로나19 계기로 세계화 후퇴, 공급망 중국서 분산 예상-EIU (파이낸셜뉴스)

영국 경제전문지 더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 EIU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화 추세가 꺾이고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의 공급망이 기업 본사와 가까운 곳, 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https://bit.ly/3bEoEz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거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